

초등무용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 예 원*

Abstract

Prospects and Agenda for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Suh, Ye-won (Chong 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has two important meanings: First, it helps elementary students to develop cognitive, temperamental, physical, and social abilities to convey their ideas and feelings by movements and second, it is above all a creative art education.

Based on these values, this article presents the current conditions of dance educa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suggests a few agenda to proliferate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for now is not independent of physical education as a curriculum. It should gain its independence from physical education to recover its own educational values as an art and aesthetic education.
2. The eleven universities of education are responsible for training dance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but the courses related to dance education turn out to be in very short supply, even though most of those universities have faculties majoring in dance education.
3. Four suggestions are made for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education: First, it should aim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dance amateurs rather than a small number of elites. Second, more dance-related courses and credits should be offered to dance education in universities. 'Dance recitals' or 'dance contests' can help attract and interest potential devotees. Third, more opportunities of training programs and institutes should be given to dance teachers to improve their quality. Fourth, dance and dance programs should be included into various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such as extra-curricula, experience learning, specialty and

*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aptitude classes.

Not all problems are listed here, however. There remain many unsolved problems to be raised and settled hereafter. Among them, environment like a dance hall or a gymnasium is an urgent consideration in dance education of elementary students. And also, ceaseless concerns and follow-up researches can enrich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put it back on the right track.

I .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무용교육은 1908년 고등 여학교와 1909년 사범학교 교육내용에 ‘유희’가 필수교재로 채택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교육부의 1차 교육과정에서 현재의 7차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육과목의 한 영역으로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무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무용교육 정상화를 위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초등무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차정원, 1994; 김화숙, 2000, 2002; 박은규, 박순이, 2002; 이순임, 2000; 최경희, 2002; 이명진, 2002; 서예원, 2002)들이 진행되어 왔다.

관련 논문들의 주 요점은 초등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이 체육 교과목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무용예술 모델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무용 기준안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수업모형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차정원(1994:23)은 다음과 같은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첫째, 교대의 무용교육과정 시간이 부족하며 무용전공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에서의 무용전담교사제가 필요하며 셋째,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초등무용교육에 대한 연구내용 및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순임(2000:322-335)의 연구에서 초등교사들의 무용수업 운영 실태를 보면 무용수업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거나 거의 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소질 적성의 부족과 자료 부족, 즉 무용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박은규, 박순이(2002:482)의 연구에서도 무용수업을 가끔 하거나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용수업 운영상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무용수업은 많은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한다. 무용에 대한 편견과 상

투적인 느낌 때문일 수도 있고 교사 자신이 무용수업을 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더욱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래 무용을 포함한 예체능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무용 및 체육수업의 시수가 줄어들었으며 교육예산의 삭감은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오게 되었다(김창현, 2003:2).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사교육비의 경감 방안의 하나로 예체능 교과 성적을 대학 입학 내신 성적에 제외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무용교육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식은 무용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초등무용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무용교육과정과 초등무용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무용교육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무용교육과정과 초등무용교사 양성의 현황 파악을 통해 초등무용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초등무용교육이 처한 제반 문제점들을 진단함으로써 앞으로 초등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 초등무용교육의 가치

가장 이상적으로 발달된 인간이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똑같이 중시하고 발달시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통합된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의 의미란 학생의 능력을 훈련시키고 실행을 위한 기술을 습득시키는 데에 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예술이 교육의 이상에 적합한 것이다. 모든 예술 형식 가운데에서 개성을 완성시키는 일에 특히 적합한 것은 바로 무용이다. 무용은 개인 성장을 위한 모든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Doubler, 성미숙 역, 1994:75).

이러한 무용의 교육적 가치는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창의적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에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가장 큰 시기인 초등학교 시기의 무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퍼셀(Theresa M. Purcell, 2001:14)은 아동기의 무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무용은 자신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으로 각 활동들을 통합하고 있다. 아동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낀다. 다른 교과 영역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표현의 수단인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무용을 통해서 아동들은 역사, 음악, 미술, 국어, 과학, 사회와 건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무용의 가치는 단순한 신체적, 기능적인 면을 넘어서 예술적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김화숙(2000:3)이 지적했듯이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핵심은 예술로서의 무용에 있다. 무용은 지적인 활동을 동반한 창조적 표현활동이며 신체운동에 의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실현의 표현교육이다. 따라서 초등무용은 단순한 움직임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예술교육, 감성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본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초등무용의 가치를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ilbert, 변재경 外 역, 2002:7-8).

■ 인지적 측면

- ① 무용의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식과 움직임 어휘를 증가시킨다
- ②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면서 움직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운다
- ③ 세계인의 무용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④ 듣기 기술을 기르고,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운다
- ⑤ 관찰력을 예민하게 하고, 무용공연과 안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법을 배운다
- ⑥ 다른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킨다
- ⑦ 안무, 즉흥을 통해 창작기술을 확장시킨다

■ 정의적 측면

- ①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므로, 내적 자아와 조화롭게 된다
- ②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조적인 움직임을 경험한다
- ③ 학생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무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감정과 사고를 얻

어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 ④ 움직임 개념의 숙달과 자기 표현을 통해 학생들의 자긍심을 증가시킨다
- ⑤ 무용을 창작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기 스스로 훈련하는 것을 배운다
- ⑥ 어려운 움직임의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고 그룹협동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신뢰를 배운다
- ⑦ 타문화에 대한 감상력을 얻는다

■ 심동적 측면

- ① 움직임과 훈련을 통해 질병에 대한 위험을 줄인다
- ② 무용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무용의 개념과 원리들을 적용한다
- ③ 신체의 자각, 통제, 균형 및 공동작용을 배운다
- ④ 신체적 힘, 유연성, 체력 및 민첩성을 얻는다
- ⑤ 긍정적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
- ⑥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다른 문화를 배움으로써 움직임에 대한 어휘를 늘린다
- ⑦ 자신의 일생동안의 복지와 관련된 무용의 역할을 존중한다

■ 사회적 측면

- ① 파트너활동 및 그룹 활동을 통해 협동을 배운다
- ②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 및 아이디어와 공간의 공유를 통해 서로 유대관계를 맺는다
- ③ 비공식 혹은 공식 공연을 통해 청중 앞에서의 자세를 배운다
- ④ 파트너활동 및 그룹활동을 통해 지도력을 기른다
- ⑤ 부드러운 신체접촉과 체중의 공유를 통해 올바르게 상대와 접촉하는 방법을 배운다
- ⑥ 창의적 탐구, 문제해결 그리고 다른 무용형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적인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한다
- ⑦ 다양한 무용기능과 공연에 참가하고 후원한다

Ⅲ. 초등학교 무용교육과정의 현황

우리나라의 무용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과 3-6학년까지의 편제가 다르게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무용은 ‘즐거운 생활’의 통합교과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즐거운 생활’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활동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놀이와 표현활동, 감상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통합교과이다(교육부, 1999a:139). ‘즐거운 생활’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즐거운 생활’의 내용체계

놀이와 표현	여러가지 놀이하기 : 재미있는 놀이하기 여러가지 주제표현하기 :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 상상한 것 등을 재미있게(다양하게) 표현하기
감상	서로의 활동과 작품감상하기 :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아름다운 점(특징) 등을 찾아보기 문화 및 체육활동 관람하기 :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아름다운 점(특징) 등을 찾아보기
이해	신체의 움직임 요소 이해하기 : 신체, 공간, 속도, 무게, 관계 등(의 변화) 이해하기 음악적 요소 이해하기 : 리듬, 가락,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의 변화)을 이해하기 조형적 요소 이해하기 : 선, 색, 모양, 질감 등(의 변화)을 이해하기

초등학교 3-6학년에서 무용은 ‘표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3, 4학년에서는 4개 영역(체조활동, 게임활동, **표현활동**, 보건)중에 포함되었고, 5, 6학년에서는 6개영역(체조활동, 육상활동, 게임 활동, **표현활동**, 체력활동, 보건)중의 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체육교육과정에서의 표현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신체 표현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여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이 시간, 힘, 공간적인 요소로 연결되어 함께 이루어지는 입체적인 움직임의 표현이다. 또,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속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신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교육부, 1999b :23-24). 이에 따른 표현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표현활동의 내용 체계

영역		학년	3	4	영역		학년	5	6
영역	세부영역	지도 내용			영역	세부 영역		지도 내용	
표현 활동	기본 움직임	비이동 · 이동 · 조작 움직임의 필수 내용/선택 내용			표현 활동	창작 표현 활동		창작 표현, 민속 표현 활동의 필수 내용/선택 내용	
	활동	창작 표현, 민속 표현 활동의 필수 내용/선택 내용				민속춤	우리 나라		
							외국		

1) 기본 움직임의 이해와 적용 - 비이동 움직임 익히기

이동 움직임 익히기

조작 움직임 익히기

이동 움직임과 비이동 움직임 익히기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능 익히기

2) 활동

- 3학년 : 소재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움직임으로 꾸며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소고춤 등의 우리나라 민속춤을 지도한다.
뽕귀춤 등의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지도한다.
- 4학년 : 신체, 공간, 힘의 요소를 결합하여 소재에 대한 간단한 느낌과 생각을 움직임으로 꾸며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탈춤 등의 우리나라의 민속춤을 지도한다.
패티 케이크 폴카 등의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지도한다.
- 5학년 : 여러 가지 주변의 소재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즉흥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강강술래 등의 우리나라의 민속춤을 지도한다.
구스타프스쿨의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지도한다.
- 6학년 : 주어진 주제에 대한 느낌이나 희망 등을 상상하여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농악 등 우리나라의 민속춤을 지도한다.
마임 등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지도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무용은 체육교육과정안에서 ‘표현활동’이라는 체육의 한 영역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체육으로서의 무용은 그 본래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무용 경험의 내용으로서의 움직임은 표현적이고 심미적인 목적 즉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사소통 측면이 무용을 독특한 것으로 만들고 게임이나 체조와는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체조와 게임이 움직임을 기능적이고 과제 지향적으로 구조화한다면 무용은 표현적이고 심미적 목적으로 구조화한다(Barret, 1984:145).

그러므로 Brinson(1991)이 지적한대로 무용은 예술형태로 인식되어야 하며 연극, 음악 또는 미술과 같이 독자적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무용이 체육교과로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Mcfee(1994)도 Brinnson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즉 무용의 교육적 가능성은 예술이 제공해야 할 정서교육에 있다는 것이다(김화숙, 2002:11, 재인용).

무용이 단순한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예술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육교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현행 체육교육과정상에 나타난 무용의 내용상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서예원, 2002:115-116).

첫째, 표현활동의 내용이 교육과정 목표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내용 진술에서는 ‘이해한다’, ‘춤춘다’, ‘표현한다’와 같이 심동적, 인지적 내용만 제시되었다. 즉 무용교육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의적 측면, 예를 들어 움직임의 기쁨을 알게 되고, 친구들과 즐겁게 춤추고, 협동심을 느끼게 되는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3,4 학년의 내용 체계 중 ‘기본 움직임’영역은 무용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것과 나아가 표현기술을 익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창작 표현’ 영역의 내용과 차이점이 없다. 그러므로 ‘기본 움직임’ 영역은 독립된 영역이기보다는 ‘창작 표현’ 영역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창작 표현’의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셋째, 표현활동 내용 진술에 있어서 일상화되지 않은 용어들이 제시되었고, 개념 설명에 있어서 핵심요소가 제외되기도 하였다. 실제 무용교육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들의 사용은 교육과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올바른 개념과 용어가 재정립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표현활동 내용 선정에 있어서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와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외국 민속춤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무용의 효용성에 관

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학생들과 교사의 실질적 요구와 능력에 부합되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초등무용교사 양성의 현황

현재 초등학교 무용교사의 양성은 교육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체육전담 교사가 무용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모든 과목을 담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의 체육교육과의 무용분과(무용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무용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은 전체 편제를 교양과정, 교직과정, 심화과정으로 대별하고, 각 과정을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교양과정은 교사로서의 지도적 인격과 폭넓은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후속되는 교직과정의 기초적 성격도 아울러 유지되는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교직과정은 교원으로서의 전문지식과 실습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교육학 교육과목, 교과교육과 특별활동으로 구분한다. 심화과정은 특정한 과목을 심화하여 이수하게 한 후, 해당되는 교과교직 분야의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다음은 본 연구자가 대학요람, 인터넷 및 전화 면담을 통해 조사한 각 교육대학 교육과정에서의 무용관련과목과 무용담당교수의 현황이다(<표 3>, <표 4>, <표 5> 참조).

표 3. 교육대학 교직과정 및 교양과정의 무용관련과목

학교명	교과목명칭	분류	학년 ¹⁾	시간(학점)	총시간(학점)
공주교대	댄스스포츠	교양선택	1학년 I	2(1)	2(1)
	체육실기Ⅱ	교직필수	2학년 I	2(1)	2(1)
	체육실기Ⅲ	교직선택	4학년 I	3(3)	3(3)
광주교대	체육과교육	교직필수	1학년 I	1(1)	1(1)
대구교대	체육과교육 I Ⅱ	교직필수	3학년 I Ⅱ	2(2)	4(4)
부산교대	체육실기	교직필수	1학년 I Ⅱ	2(1)	4(2)
	댄스스포츠	교양선택	4학년 I	2(2)	2(2)

학교명	교과목명칭	분류	학년 ¹⁾	시간(학점)	총시간(학점)
서울교대	초등무용활동지도법 민속무용	교직필수	1학년 I	2(1)	2(1)
		교직선택	4학년 II	2(2)	2(2)
경인교대 ²⁾	민속춤(or춤과장단) 건강과 스포츠	교직선택	1학년 I	2(2)	2(2)
		교양필수	2학년 I	2(2)	2(2)
전주교대	건강과 스포츠	교양필수	1학년 I II	2(2)	4(4)
제주교대	무용의 이해	교양선택	2학년 I	2(2)	2(2)
진주교대	체육과교육 I	교직선택	2학년 I	2(1)	2(1)
청주교대	댄스스포츠 체육실기 I	교양선택	1학년 I	2(2)	2(2)
		교직필수	1학년 I	1(1)	1(1)
춘천교대	체육실기 I 아동무용	교직필수	1학년 I	2(2)	2(2)
		교직선택	3학년 I	2(2)	2(2)

1) I 은 한학기만 개설된 과목이고, II는 1, 2학기에 개설된 과목임

2)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명칭이 바뀜

교직 및 교양과정에서의 무용관련과목의 명칭은 ‘체육실기’나 ‘건강과 스포츠’ 또는 ‘체육과교육’ 등의 명칭으로 개설되었으며, ‘아동무용’이나 ‘민속무용’, ‘춤과 장단’, ‘스포츠댄스’, ‘무용의 이해’와 같이 무용과목임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개설되었다.

과목분류는 교양선택이나 교직선택 및 교직필수로 분류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몇몇의 대학에서는 단지 선택과목으로만 지정되어 무용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무용을 배워보지 않은 채 교육현장에 나가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또한 학년분석을 보면 전학년을 걸쳐 골고루 무용수업이 개설된 대학이 있는 반면 몇 개의 대학에서는 저학년(1-2학년)에만 개설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용교육이 대학에서의 단순한 수업내용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저학년에서는 교양과목으로서의 무용과목이 개설되고, 고학년에서는 교직과목으로서의 무용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교육대학 체육교육과(심화과정)의 무용관련 과목

학교명	교과목명칭	학년	시간(학점)	총시간(학점)
공주교대	무용	3학년 I 3학년 II	2(1) 2(2)	4(3)
광주교대	체육과교육Ⅳ 교육무용	3학년 I 4학년 II	1(1) 4(3)	5(4)
대구교대	무용	4학년 I II	2(2)	4(4)
부산교대	무용	3학년 I II	2(2)	4(4)
서울교대	아동창작무용론 아동무용교육론	2학년 II 3학년 II	2(2) 2(2)	4(4)
인천교대	무용	3학년 I II	2(2)	4(4)
전주교대	0	0	0	0
제주교대	리듬 및 표현운동	3학년 II	2(2)	2(2)
진주교대	무용	4학년 I II	3(3)	6(6)
청주교대	무용	3학년 I II	2(1)	4(2)
춘천교대	리듬표현	4학년 I II	2(2)	4(4)

각 대학 체육 심화과정에서의 무용과목은 무용이나 교육무용, 리듬표현 등의 명칭으로 개설되었고 주교 3학년이나 4학년 과정에서 개설되었다. 무용시간 및 학점은 2학점 2시간에서 6학점 6시간으로 차이가 많이 났다.

<표 3>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교육대학 교육과정에서의 무용관련 과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전체 145학점 중에서 최소1학점에서 최대4학점이 무용교육에 배당된 학점이고, 체육교육과의 심화과정 이수에 필요한 18학점 중 최대0학점에서 최대6학점이 무용교육에 배당되어있다. 즉 전체 교대생은 1-4학점만 이수하고 교육현장에서 무용을 지도해야 하고, 체육교육과(무용전공 포함)의 학생들은 1-6학점을 더 이수한 후에 무용을 지도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이 학생들이 졸업 후 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무용을 지도하는 것에 자신 없어하고 꺼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교육대학의 특성상 초등교과 전과목을 배워야 하고 각 과목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용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생각할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대학의 무용담당교수는 서울교대와 대구교대가 2명이고 제주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교대가 1명씩 재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전공이 아닌 체육전공의 무용담당교수가 많다는 비판(차정원, 1994:22)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국교육대학 무용담당 교수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김영숙	김우자	박순이 박은규	오세복	김두련 김미자	이강순	구복자	0	차옥수	서예원	윤희상

V. 초등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초등무용교육과정의 현황과 초등무용교사 양성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무용교육과정이 체육교육과정에 포함됨으로써 예술교육으로서의 본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대학에서의 무용관련 과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초등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초등교육에서의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무용교육의 부실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전술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초등무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무용교육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술교육으로서의 가치회복

무용은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이 단순한 움직임 기능의 습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데 체육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음악이 악기나 음성으로, 미술이 그림이나 조각으로, 시나 소설이 글로써 자신을 표현한다면 무용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나 어떤 분야보다도 무용은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근원적

이다.

Literacy Arts Task Force Report는 다음과 같이 무용을 설명한다. ‘인간이 시작한 어떤 다른 행위보다도 매우 근원적인 면에서 무용만큼 자기 자신을 창조하기 좋은 도구는 없을 것이다. 자기 창조의 경험은 우리의 모든 아동들에게 길러져야 하고, 아마 우리가 무용이라고 부르는 언어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성취될 것이다(Purcell, 김두련 역, 2001:22, 재인용)’.

그러므로 무용은 단순한 움직임 교육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한 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 많은 학자들(Doubler, Barret, Brinson, Mcfee, Purcell, Gilbert)이 지적하듯이 무용은 예술교육으로서의 가치 즉, 학생들의 개성을 완성시키는 창조적 표현활동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2. 탈엘리트주의

이 세상에 무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Hanna(2001:40)가 지적한대로 움직임은 모태어이며 태초의 생각이다. 모든 인간은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을 때부터 움직이고,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몸을 흔들게 되며 그러한 것들이 즐겁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들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듯 하다.

특히 예비 초등교사들의 경우에도 무용을 경험해 봤느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무용을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의 춤이나 흥에 겨운 막춤도 무용이라고 하면 놀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무용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실제로 무용을 경험해보고 그 느낌을 체험하게 되면 무용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

무용의 여러 분야 중 무용교육, 특별히 초등무용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무용가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다.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걸 배우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무용교육은 소위 몸치부터 유연한 사람까지, 키가 크건 작건, 날씬한 사람부터 뚱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무용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신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중한 즐거움 경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초등무용교육현장에서는 소수의 무용엘리트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무용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무용교육자가 필요하다. 그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무용하는 것을 즐기고, 움직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 양성기관의 무용교육 강화

전술한대로 예비초등교사의 무용교육은 교육대학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두 교대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자신 있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7차 체육과정에서는 창작무용, 한국 민속춤, 외국인속춤, 무용감상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대학에서의 1-2학점의 교육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체육교육과의 학생들 중 무용을 전공으로 하는 ‘무용분과’ 학생들은 꾸준히 무용 레슨을 받고 졸업을 위해 무용 발표를 함으로써 무용에 많이 숙련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체육교육과의 학생들도 심화과정중의 무용 수업을 2-4학점을 더 이수하기 때문에 일반 교대생들 보다는 나은 형편이다. 그러나 사실 교대에서의 ‘체육교육과’ 라는 분류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체육교육과 학생이라고 해서 나중에 현장에서 체육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종목(2002: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사 양성기관(교대)과 재교육기관(1정, 실기연수)에서 충분히 지도 받지 못한 체육과 영역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남교사의 경우에 ‘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의 경우에는 계절 및 민속무용, 체조, 무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은규, 박순이(2002:48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무용 수업 운영상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교사지도 능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지도능력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에서의 무용 관련 과목이 늘어나고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 교육현장에서의 보다 수준 높은 무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교육대학의 무용 발표회 같은 행사나 무용 경연대회를 주최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몇몇 교대에서는 무용분과의 졸업 발표회 이외에 일반 교대생들이 참가하는 무용 발표회가 열리고 있고, 해당 교육청과 교대가 연대하여 주최하는 초등학생들의 무용 경연대회도 열리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초등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무용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재 일본에서 매년 성황리에 시행되고 있는 ‘창작무용 경연대회’는 전국적인 무용 행사로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땀 흘려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적인 무용 행사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무용 연수기회의 확대

교사는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한다. 때문에 컴퓨터, 영어를 비롯해서 많은 예체능 교과에 대한 연수들이 교사 재교육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대학에서의 무용교육 과정이 부족한 실정이고, 초등학교 무용수업 운영상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교사지도 능력 부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용 연수나 강습회가 필수적이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이순임, 이종목, 박은규)에서 보면 초등교사들이 무용 연수를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무용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무용연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규, 박순이(2002:481)의 연구에서는 응답 교사의 70%이상이 무용과 관련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90%이상이 무용수업을 위해서 무용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무용연수 분야는 스포츠탄스, 창작무용, 민속무용 순으로 나타났다(이순임, 2000:333). 또한 이애주(2000)의 연구에는 중등학교 교사들이 교과서보다 무용 연수 내용을 이용하여 무용수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무용에 대한 교사 연수나 강습의 필요가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강습회나 연수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한국 무용교육학회와 한국 무용지도자 협회에서 주최하는 무용 강습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교대를 비롯한 몇몇 단체에서 스포츠 댄스 및 민속무용 강습회가 열리고 있으나, 초등무용에서 필요한 창작무용을 강습하는 연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다양한 무용분야가 강습되고 새로운 무용정보들이 교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용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03년부터는 자율연수의 경우에 1년에 한번, 교사 1인당 연수경비의 50%를 지원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초등교사들을 무용연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용연수가 교육청과 연계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연수나 강습회의 이수시간이 교사의 학점수에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5. 초등학교 무용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초등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학교 행사에서의 무용의 참여를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 행사로는 운동회나 학교 축제를 들 수 있다. 운동회 때에 마스게임이나 기타 경기를 하기보다는 민속무용이나 스포츠 댄스와 같은 무용을 발표하고, 학교 축제에서는 무용 발표회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고 준비하면서 무용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즐기게 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특별활동’과 ‘체험학습’ 및 방과 후의 ‘특기, 적성 교실’에서 무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초등학교에서 ‘특별활동’과 ‘특기, 적성 교실’에서 무용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발레나 한국무용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무용 프로그램의 강조 및 다양화는 사교육비 절감의 차원에서도, 또한 무용 전문가의 취업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은미(2002:127)의 연구에서도 ‘체험학습’에 대한 무용의 역할을 교사들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련 프로그램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므로 ‘특별활동’, ‘체험학습’ 및 ‘특기, 적성 교실’ 등의 무용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Ⅵ. 맺는 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초등무용교육은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예술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초등무용교육의 가치들을 전제로 하여 현행 체육교육과정 속에서의 무용교육 과정과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의 무용교육현황을 중심으로 초등무용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그와 관련하여 초등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에서의 무용은 교과로서 독립하지 못하고 체육교육과정속에 포함되어 있다. 무용이 그 본래의 교육적 가치 즉 예술교육, 정서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체육교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한 문제이다.

2. 초등무용교사 양성은 교육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의 11개 교육대학을 조사해 본 결과, 무용관련 과목 및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명칭에 있어서도 무용과 관련된 명칭이 많지 않았으며 교직과목에서의 무용과목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무용교수진의 경우에는 무용담당 교수가 없는 학교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대가 무용 전공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무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가 제안되었다.
 - 첫째, 초등무용교육은 단순한 움직임 교육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그림으로써 개성을 완성시키는 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
 - 둘째, 소수의 무용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무용애호가를 키우는 쪽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셋째, 교육대학에서의 무용관련 과목이 늘어나고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대의 '무용발표회'나 '무용경연대회'와 같은 무용관련 행사들을 주최함으로써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무용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 넷째, 무용 연수나 강습회가 많아져서 교육현장에서의 보다 질 높은 무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다섯째, 운동회나 축제와 같은 초등학교 행사에 무용을 참여시키고, 특별활동, 체험학습, 특기 적성 교실에서도 무용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무용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밖에도 무용교육에 산재한 문제들은 너무나 많다. 무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무용실이나 체육관의 부재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초등무용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연구들이 계속 진행됨으로서 초등무용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8), 체육과 교육과정(별책11),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_____(1999a),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_____(1999b),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II),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1999c),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V),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화숙(2000), “초등학교의 창작무용학습을 위한 내용구성과 지도모형”,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1집 1호.
- _____(2002), “제7차 교육과정 무용의 내용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 김창현(2003), “체육교육의 최근 동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제7회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노은미(2002), “초등학교 무용 체험학습 현황 조사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 박은규, 박순이(2002), “초등학교 무용수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책 모색”,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제2호.
- 서예원(2002), “제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무용교육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발레연구학회, 발레연구논문집 제16집.
- 이명진(2002), “초등학교 무용교육 표준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3권 제1호.
- 이순임(2000),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4권 제2호.
- 이애주(2000), “우리춤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제39권 제3호
- 이종목(2002),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6권 제2호.
- 차정원(1994), “국민학교 무용교육의 현황분석과 그 개선책”,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최경희(2002), “무용교육내용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3집 1호.
- Barret, R. Kate(1984), *Physical Education for Children*, Philadelphia: Lea&Febiger.
- Gilbert, Anne.(2002), 다함께 즐기는 창작무용, 변재경 외(역), 서울: 대한미디어.
- Hanna, L. Judith(2001), *The Language of Dance*, *JOPERD*, Vol. 72 No.4.
- H'Doubler, Margaret(1957), 창조적 경험으로서의 춤, 성미숙(역), 서울: 현대미술사.
- Purcell, M. Theresa(2001), 어린이들을 위한 무용교육, 김두련(역), 서울: 금광.
- www.chonju-e.ac.kr
- www.gjue.ac.kr
- www.pusan-e.ac.kr
- www.taegu-e.ac.kr